

“청년 크리에이터·미디어 기업, 더 많이 지원”

-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확장 이전...“청년 미디어 기업 국제 무대로 가야” -

청년 미디어 기업에게 제작 스튜디오와 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콤플렉스’가 서울 마곡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홍범식)는 21일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이전 개소식을 열고 청년 미디어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년 서울역에 개소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는 청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특화 제작 스튜디오와 독립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미디어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위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 마곡으로 확장 이전하며 입주 사무공간을 기존 34개 사에서 40개 사로 확대했으며, 관련 산업 성장을 고려해 명칭도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로 변경했다.

개소 5년 차를 맞은 현재, 누적 1만 4천920명이 스튜디오 등 시설을 이용했고 총 87개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입주를 지원해 입주기업은 누적 매출액 약 521억 원, 국내·외 투자유치 1천578억 원, 신규고용 총 268명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국 인공지능 새싹기업(스타트업) 최초로 다국적 기업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1천5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트웰브랩스’는 1기 입주기업으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에서 성장 기반을 닦았다.

이번 확장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에 따라 청년 미디어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 창작 중심 공간에서 창업-성장-글로벌 진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미디어 창업 거점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108-3) : 1인 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창업·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 강화

아울러 방미통위는 크리에이터의 권리보호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관련 창작자 및 인공지능·미디어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개소식에 앞서 입주기업 사무실과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인공지능 기술로 유튜브 영상 대표 이미지(썸네일)를 생성하는 ‘태나다’와 100만 창작자들이 소속된 ‘굿워크랩’의 사업 모델 시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창업가들을 격려하며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 미디어 기술 융합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미디어 창업 활성화’를 주제로 김 위원장과 트웰브랩스, 아도바, (주)스미스, (주)올블랑, (주)슈카친구들 등 미디어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크리에이터, 건국대 황용석 교수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경험한 창업 과정의 애로사항과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사업모델 확장, 지역 기반 산업과의 상생,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창업에 도전하며 겪는 초기 자금과 인력, 관계망(네트워크) 부족 등의 어려움과 지역 미디어 산업 성장을 위한 기술 특화 인재, 기업 육성, 지역 거점 시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문 멘토링과 상담(컨설팅),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연계 및 해외 기업과의 접점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크리에이터 미디어 콤플렉스를 거점으로 창작자들과 창업기업이 성장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지역 미디어 창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미디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전문 멘토단의 사업확장 상담(컨설팅) 및 투자 교육, 투자 설명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입주 및 스튜디오 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meplex.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홍보 전단(리플릿)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어정욱 (02-2110-1620)
		담당자	주무관	김혜자 (02-2110-1638)
관련 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크리에이터미디어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균택 (02-317-6196)
		담당자	과 장	배성진 (02-317-6145)



Creation to Business

창작의 중심, 비즈니스의 시작

Start Your Dream!

MEDIA COMPLEX

LANDMARK MAGOK SEOUL

118-1191 118-1192 118-1193 Tower 1 2F, 3F

B2F-2F STUDIO SPACE

크리에이티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설 공간 지원

OPEN STUDIO

사설료 전월 220,000원
반월 110,500원

1인, 2인, 3인용 개인실 등 다양한 크레딧 촬영 및 촬영이 가능한 오픈형 스튜디오

UNIT STUDIO

사설료 전월 85,000원
반월 27,500원

교육, 홍보영상 촬영 소규모 크레딧 촬영에 최적화된 심시간 스튜디오

MULTI STUDIO

사설료 전월 110,000원
반월 55,000원

① 기본 스튜디오 ② 채광 스튜디오

③ 후집 스튜디오 ④ 홀리존 스튜디오

공식, 프크, 예능 등 장기간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제작에 맞게 활용 가능한 맞춤형 스튜디오

3F OFFICE SPACE

크리에이티 미디어 기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주공간 지원

사무공간

공용공간

크리에이티미디어 콤플렉스 승합 안내

- 3F 사무공간
- 2F 휴스텔 스튜디오
- B2F 오픈 스튜디오

크리에이티미디어 콤플렉스 소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원을 받아 자체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 갈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 하는 이곳은 "크리에이티미디어 콤플렉스"입니다.

MISSION

"크리에이티 미디어 지원 Scale-Up"

- 크리에이티 창주기 성장 지원
- 책임투자 육성과 IP 경쟁력 강화
- 미디어 특화 인트라 운영
- 입주공간과 전문 제작시설
- 투자 연계와 글로벌 진출 지원
-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VISION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산업 혁신"

- STEP1 크리에이티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 STEP2 디지털 미디어 산업 육성
- STEP3 혁신 선구 일자리 창출